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목 (첫 주는 성시간)	금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오전 9시 30분

연중 제22주일

2 0 2 5

0 8

3 1

주보

입당송 시편 86(85),3.5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
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제1독서 집회서 3,17-18.20.28-29

화답송 시편 68(67),4와 5ㄱㄷ.6-7ㄱㄷ.10-11(◎ 11ㄴㄷ 참조)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
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

○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
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시네.

◎

○ 하느님, 당신은 넉넉한 비를 뿌리시어, 메말랐던 상속의 땅을 일구셨나이다.
당신 백성이 그곳에 살고 있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
이 마련하셨나이다. ◎

제2독서 히브리서 12,18-19.22-24ㄱ

복음 환호송 마태 11,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
에게 배워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4,1.7-14

영성체송 시편 31(30),20 참조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Szkredka 주교님 강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립시다



먼저, 오늘 이 새롭게 단장된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도록 초대해 주신 예로니모 신부님과 이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라는 물리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회와 믿음의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구원받는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말해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에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온 힘을 다하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몸과 마음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 즉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인생에서 단 한 번 내리는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구원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힘쓰고 자신을 다하는 태도를 통해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ἀγωνίζομαι(agonizó)로, 문자 그대로 “씨름하다, 경쟁하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경기에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학자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곧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연한 결심이 필요하다.” 스페인어로는 “determinada determinación”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고, 하느님을 따르며,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지, 해가 비치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모든 일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주된 태도는 하느님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좁은 문이시며, 좁은 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의 처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을 듣습니다. 갈릴래아에서 사명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정확히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향하다”라는 표현은, 섬주

의 관용구로서 ‘흔들림 없는 결심, 확고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결심, 즉 예수님의 헌신적 노력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시 살아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며, 동시에 우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 성실한 배우자가 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신앙인, 책임 있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며칠 전, 저는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신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막 첫 단계 양성 과정을 시작한 대학부 신학생 12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18살에 불과했고, 어떤 이는 30대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정과 삶, 직업을 뒤로하고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를 떠나야 했고, 어떤 이는 성공적인 직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아픔이 뒤따릅니다. 또한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도록 부르시는 그 좁은 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에서, 우리 마음 속에 오시는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 그 사랑의 힘과 끌림으로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힘써시다. 아멘.

Szkredka 주교님 답사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하느님께 완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감사에 함께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신실한 신앙 정체성을 지켜오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제들을 돌보고, 멀리서 오셔서 함께 모이고, 함께 미사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전 리모델링은, 만약 이곳에서 함께 경배하고 모이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말할 필요없이 우리는 모두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교회는 이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에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근면한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이 많이 계시며, 이곳에서 우리는 그 모든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까지 이끌어 주신 지도력, 비전, 끈기 있는 노력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리모델링에 시간과 재능, 자원을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앞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1. 주교님 본당 방문에 수고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11-7.23일까지 3개월에 걸친 성당 보수공사를 위해 애쓰신 시설분과, 사목회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교님 방문을 맞이하여 음식준비와 단장에 애쓰신 성모회, 구역분과와 전례준비에 애쓰신 성가대, 전례분과, 또 본당 공사 자료집을 제작한 홍보분과, 전체 행사진행에 애쓰신 사목회 임원분들과 본당 대청소와 영적예물 봉헌에 동참해주신 모든 교우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성시간

9월 4일(목) 19시 30분 미사 후

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썰 (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요일 09:30 미사 후 10:00에 썰 기도 모임이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썰’은 세포라는 뜻으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이 전 세계에 세포처럼 퍼져 나가 확장되기를 지향하면서 붙여진 기도모임의 명칭입니다.

1917년 파티마에 세 어린이에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평화와 무신론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모임을 가질 때, 수많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셨기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티 없으신 성모성심의 뜻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4. 본당 공사 자료집 열람

그동안의 본당 공사 과정을 홍보분과에서 책자로 제작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2025 Fr. GERRY CUP 골프대회

- 주최: 성 요셉 성당
- 일시: 9월 14일(주일) (1st tee time 10:30am)
- 장소: Los Robles Golf Course (299 S Moorpark rd, Thousand Oaks)
- 행사: 점심 제공, 17:30 저녁식사 및 래플 행사(성당)
- 등록: 참가비 130불(등록마감: 9월 3일)
818-998-1155 (사무실) 818-675-3550 (Duke park)
온라인 QR코드 스캔.
- 기타: 벤투라 성당 4인팀 결성 가능, 10시 미사 후 참석 가능

6. 본당의 날

- 주제 : 25년 정기희년 맞이 전교우 전대사
- 일시 : 9월 21일(주일) 9시 - 15시
- 장소 : 본당 (교중미사) 및 보나벤투라 미션 (전대사기도)
- 전대사 조건 : 고해성사 (8일 전까지 유효), 미사, 지정순례지에서 전대사 기도

- 세부일정
 - 1) 고해성사 : 9시-9시 55분, 11시-12시 30분
 - 2) 미사 : 10시
 - 3) 식사 : 12시 30분- 13시 30분
 - 4) 미션이동 : 13시 30분- 14시
 - 5) 전대사 기도 : 14시-14시 30분
 - 6) 미션 설명 : 14시 30분- 15시

7. 구역모임

9월부터 구역모임을 시작합니다.

- 구역모임은 2개월에 1번씩 이뤄질 예정입니다.
- 구역모임시 식사준비는 없이, 간단한 다과준비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구역모임시 필요한 기도책자를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구역 모임시 개인선물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지향

감사 기도

설옥진(카타리나), 권수현(세실리아) 자매님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다함께 감사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

- 벤투라 본당 수리 및 공사를 위해 Call to Renew 기금 지원을 결정해 주신 산타바바라 지역 주교님과 관계자분들, Call to Renew 기금에 동참해주신 LA 교구 성당의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 기도 바랍니다.
- 워싱턴 DC 항공기- 헬기 충돌 사고로 희생되고 실종된 67분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8월 31일 연중 제 22주일	9월 7일 연중 제 23주일
제1독서 : 박민정 안젤라 제2독서 : 김미숙 마리아나	제1독서 : 한혜정 레지나 제2독서 : 하주영 프란치스코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봉성체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8월 3일	\$1,250	\$505	\$50	\$1,905	32	0/1	32/1
		공소 \$100					
8월 10일	\$600	\$325	\$375	\$1,300	27		27
8월 17일	\$2,000	\$400		\$2,600	39	7	46
		\$200					
8월 24일	\$440	\$1,000	\$1,150	\$2,590	65		65
8월 31일							
합 계	\$4,290	\$2,530	\$1,575	\$8,395			

교무금 현황 김영섭(7,8,9), 이경숙(9,10)

기부금/기타 현황

감사헌금: \$1,000 (설레오나르드/카타리나 \$ 500, 황바실리오/마리아 \$ 500)

꽃장식 기부금: \$150 (익명 \$50, 익명 \$100)

벤투라 성당 사목협의회원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	시설분과장	김선태 야고보
부회장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선교분과장	박태진 막시밀리아노 콜베
총무	김상우 아오스딩	홍보분과장	ANDY 대건 안드레아
회계	문기선 데레사	복지분과장	김미숙 마리안나
성모회장	박미라 요세피나		
성가대단장	Dorothy Schaefer (도로테아)	Ventura 구역장	김미화 아녜스
신앙교육분과장	정설애 세실리아	Oxnard 구역장	정범순 카타리나
청소년교육분과장	박민정 안젤라	Camarillo 구역장	박민정 안젤라
전례분과장	토마스 버치필드	Santa Maria 공소회장	김영섭 베드로